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2013년 경제협력국가(에티오피아)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KSP)사업: 수출진흥 전략

2. 출장목적

- 착수세미나 발표 및 현지연구자 선정
- 수출담당 정부부처 및 협회와 수출업체 방문 세부 실태조사

3. 출장지역: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일원

4. 출장기간: 2013년 8월 3일(토)~8월 9일(금), 6박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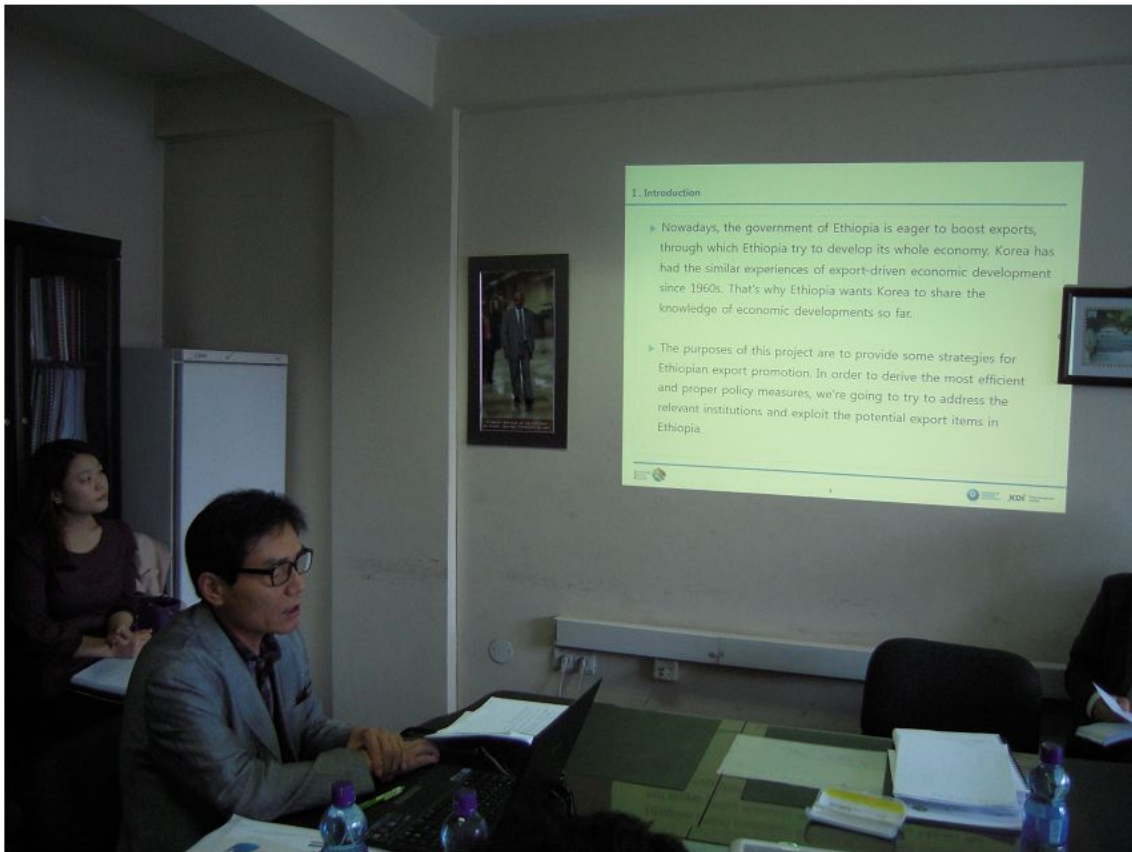
5. 출 장 자

소 속	출장자	직 위	비고
글로벌협력연구부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II 출장일정

- 8월 3일(토) 23:55; 두바이행 출국(KE5951)
- 8월 4일(일) 10:30; 아디스아바바행 출발(EK723)
 - 15:00; 호텔(주피터) 체크인
 - 16:00; 현지 전문가 면담
- 8월 5일(월) 09:30; 착수세미나
 - 12:30; 착수세미나 오찬
 - 15:00; 관계부처(통상부, 재정경제부) 방문
- 8월 6일(화) 09:30; KOICA, KOTRA 방문
 - 13:30; 한국대사관 방문
 - 16:00; 상품거래소(ECX) 방문, 면담
- 8월 7일(수) 09:00; 농업부(MOA) 방문, 면담
 - 13:30; 농업구조변환청(ATA) 방문, 면담
 - 16:00; 커피수출협회(ECEA) 방문, 면담
- 8월 8일(목) 09:30; 조사결과 발표 회의
 - 12:30; 현지 기관 및 연구진 Wrap-up 간담회
 - 16:10; 두바이행 출발(EK724)
- 8월 9일(금) 16:40; 인천공항 도착(KE5952)

Ⅲ 주요 출장결과



<사진 1> 착수세미나 발표 장면

1. 통상부(MOT): Getahun Bikora(Director)

- 주요 수출품목: 커피, 채유종실, 축산물, 축산부산물, 금 등 광물, 섬유 등
- 국가고위위원회에서 모든 수출장애요인 감독 및 불평불만 접수, 시정 노력
- 수출진흥조직
 - 통상부 산하 무역협상 및 양자협상 담당부서에서 수출품목의 변화 등 수출의 동태적 현황과 전망 주시
 - 산업부(MOI) 산하에도 수출진흥기구 존치
 - 수출진흥제도 정착 위해 한국의 경험에 대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필요. 제1차 KSP는 중소기업 수출진흥사업이었음.
- 에티오피아 수출의 장애요인
 - 품질 수준 낙후: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공, 포장, 운송, 취급 등 낙후
 - 협상력 부족: 국제 브로커들에 비해 국제시장의 수급물량과 가격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협상 결과
 -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미흡: 가공도 낮은 신선농산물 수출로 부가가치 창출 부족. 수출로 인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확대 위해 부가가치 제고 필요.
 - 외국인 투자 유인 부족: 가공산업에 FDI 유치 통해 국제수준의 품질 제고 요망

2. 상품거래소(ECX): Amb. Addis Alem Balema(Director General)

- 국제 커피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수출국 피해 가중
 - 2011년 파운드당 약 3달러에서 2013년 현재 절반 이하인 1.4달러로 하락
 - 가격 하락 요인은 미국과 EU의 경기 침체 및 브라질의 생산 증가 등
- ECX는 에티오피아 커피 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절삭
 - 커피 경매인은 약 10명이며 경매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은 무시하고 중간가격대로 결정하여 수출
 - 전국 20여개 지점 통해 농민에게 가격정보 실시간 전달
 - 2014년 전자경매 도입 예정

○ 커피수출 증대 방안

- 농촌지도 강화 통해 종자관리, 재배기술 등 제고
- 자금 접근성 향상 위해 미소금융(micro-financing) 등 자금 지원
- 커피 플랜테이션 등 재배면적 확대
- 소규모 농가의 조합 결성 지원 통해 마케팅 능력 개선
- ECX 운용의 효율성 제고: 현재 4~5인의 에이전시와의 수출 계약
- 부가가치 제고 위한 투자 확대: 수출되는 커피의 30% 정도만 세척 후 수출. 나머지 70%는 건조상태로 수출되어 부가가치 하락
- 야생재배 등 친환경커피 수출로 부가가치 제고

○ ECX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해서는 창고(warehouse) 현대화 시급

- IT 기술 활용한 입출고 관리 자동화, 상하차 장비 현대화 등



<사진 2> ECX Bakema 사무총장 면담

3. 농업부(MOA): Samuel Abiyou(Director)

- 에티오피아 농업정책의 주안점은 수출 확대보다는 생산량과 생산성 제고
 - 전체 경작가능 면적 8,500만 헥타 가운데 농경지 면적이 1,600만 헥타에 불과할 정도로 경지활용도가 낮아 식량자급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문제
- 농업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는 토지집약적인 화훼 등 원예산업 육성과 토지사용적인 곡물 및 면화산업임.
 - 축산업은 소말리아 등과의 접경지대를 공유하고 있어 물 확보를 통해 가축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에티오피아 국경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됨.
 - 야생 및 준야생 재배되는 유기농 커피는 생산성이 저조한 실정. EU 등의 커피산업 투자로 생산기술 향상 기대하고 있음.
- GTP(성장과 구조변환계획)는 농업부문의 생산량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
 - 지부티, 소말리아, 수단, 케냐 등과 접경문제(boarder issues) 협의 위해 정부간 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설립 및 활용
- 피혁산업은 미가공 상태로 수출되어 부가가치가 낮은 문제점이 있음. 축산농들은 사육두수가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전통과, 가뭄 발생시 가축이 폐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육두수 확대에 주력
 - 육류 품질은 도축장 시설 및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생축 수출은 지부티에서 검역을 거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지로 수출됨. 수출육류는 도축시 검사를 거치나 내수용 육류는 도축검사 없음.
 - 피혁 품질 저하의 원인은 도축부터 피혁가공까지의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구조적 문제



<사진 3> 농업부 Abiyou 과장 면담 후

4. 농업구조변환청(ATA): Nega Wubeneh(Director)

- 에티오피아 농업의 비효율성과 영세규모 등 낙후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ATA(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출범
 - 국내외 최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문제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 채택
 - 민간부문에도 토양과 종자, 협동조합, 시장 등 관련 시스템과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기술 등 해결책 제안을 개방
- 에티오피아는 엄청난 외국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에서 고험력 인재와 국내 숙련 인력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문제 해결 노력
- 에티오피아 농업의 병목현상(bottle-neck)
 - 수리시설이 낙후되어 물 부족 위험에 상시 노출

- 낮은 농업생산성
- 신용과 금융에 대한 접근성 취약: 운용자금 부족
- 농산물 가공산업의 재정적 위험분산 방안 미비
- 상용농업기술(low-planting technology) 부족
- 마케팅 분야에서 미가공품 수출로 등급 저하 및 운송비용 상승
- 농가의식 등 문화 개선 필요

○ 가치사슬(value-chain) 의제; 개발

- 품목별 시장지향적 가치사슬 로드맵 수립; 관습적 영농 아닌 시장신호에 따른 영농 지도
- 에티오피아 농업에서 수출은 틈새시장(Niche market): 한국시장 접근 위해 이력 추적제(traceability) 등 제도 도입 추진

○ 참깨 등 농작물 관련 작업반 조직: 2013년 현재 10여개

- 지방정부는 소규모 농가들에 미소금융(micro-financing) 등 접근성 확대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설립
- 수출관리 위해 서류작성, 가격협상, 바이어 물색, 가격정보 수집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창고임차 등 하드웨어 지원 병행

○ 지금까지의 ATA 성과는 농업문제에 대한 체계적(systematic)인 접근을 시도한 점. 현 시점에서 당면과제는 인력 충원 문제

- 지속적인 농업부문의 구조변화를 위해 국내외 재능있는 인재 충원과 예산 등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이 관건



<사진 4> ATA 직원들과 회의

5. 커피수출협회(ECEA): Tadesse Ayenew(Deputy CEO)

- 커피 수출가격은 항상 등락하며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최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 기대
- 에티오피아 커피는 원래 천연상태의 품질(natural quality)은 높지만 가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가공시설과 물류 개선이 시급함. 특히 수출항까지 무개차(open truck)로 운송함으로써 목적지(destination) 도착시 저급품으로 변화
- 커피수출업체들은 상품거래소(ECX)를 통해 수출물량을 구매하여 해외 바이어와 직거래하거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 수출유인은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
- 커피수출협회 회원사들은 커피 수출 증대 위해 플랜테이션 재배를 확대하고 있

음. “Belayneh Kindie”사의 경우 현재 250헥타인 플래테이션 면적을 3,000헥타로 확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음.



<사진 5> ECEA Ayenew 이사 면담

VI 평가 및 시사점

- “에티오피아의 수출진흥”과제는 재정경제개발부(MOFED)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로서 수출담당 부서인 통상부(MOT)나 농업부(MOA) 담당자들의 수출진흥 과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지는 않으며,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촉진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특히 농업발전을 산업화의 디딤돌로 채택한 “ADLI”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산물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관방문과 담당자 면담 결과 에티오피아의 수출은 커피와 채유종실 및 육류와 가죽 등 농축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품목은 가공시설과 도로 및 운송수단 등 빈약한 수출인프라로 인해 품질이 낮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미진하여 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커피 등 특정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액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성장과 구조변환정책(GTP)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 부문도 농업구조변환청(ATA)을 설립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ATA 요원들은 에티오피아의 농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농산물 수출진흥 역시 생산 확대와 인프라 구축, 가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연구 추진 과정에서 개발연대 시절 자본과 기술 부족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티오피아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상 -